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한국 7월 수출

예상 소폭 상회; 반도체가 견인하는 폭발적인 수출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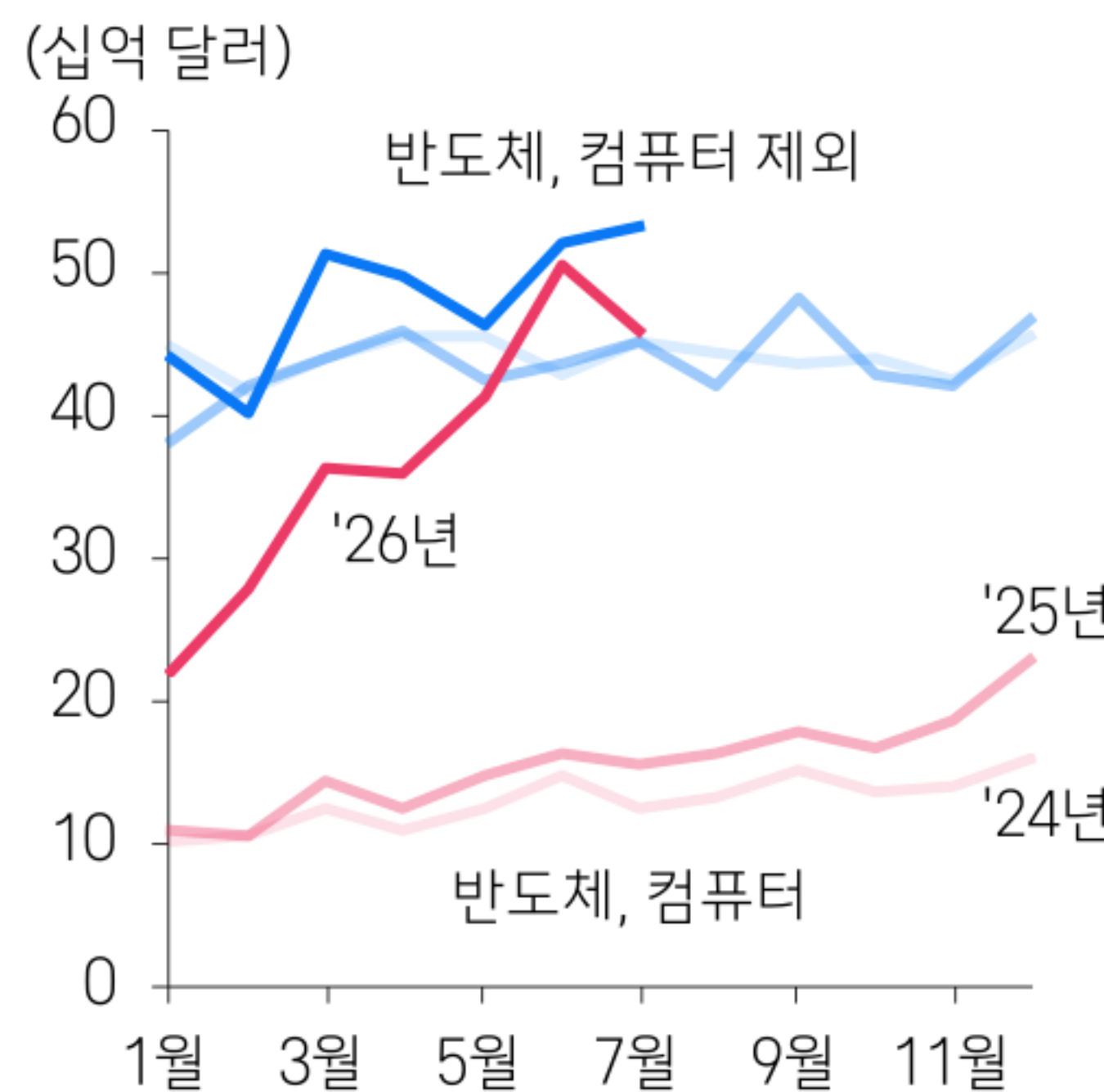
-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 7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했고, 동시에 비철 금속, 전기기기 등도 양호. AI 인프라 투자가 한국 수출 견인하는 국면 지속 전망
- 다만, 화학제품은 단가상승, 자동차는 여름 휴가 일정 조정으로 (+)를 기록. 고유가와 금융여건 악화로 경기민감 품목의 수출은 당분간 부진할 전망

'26년 7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62.8%(988.9억 달러)를 기록하며, 당사(58.3%)와 금융시장 예상(59.0%, Bloomberg 기준, 이하 전년 대비)을 소폭 상회했다. 또한, 일평균 수출은 조업일수가 하루 감소한 영향으로 69.6%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178.8%)와 SSD(500.0%)의 수출이 7개월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7월에도 디램과 낸드의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여전히 물량의 증가보다는 단가 상승이 해당 품목들의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비철금속(23.9%), 전기기기(13.9%), 철강(4.4%) 등도 AI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의 영향으로 양호했다.

나머지 주요 품목 중에서는 2차 전지(17.2%), 화장품(37.8%), 생활용품(14.2%) 등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일부 품목은 단가 상승이나 일시적인 요인으로 (+)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제품(34.1%)과 석유화학(10.3%)은 물량보다는 단가 상승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자동차(7.0%)도 하계 휴가 시점 이동의 영향으로 (+)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별 수출에서는 중국(96.2%), 미국(68.7%), 아세안(73.7%) 등 대부분이 (+)를 기록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중 반도체와 SSD를 제외한 품목은 대체로 감소하거나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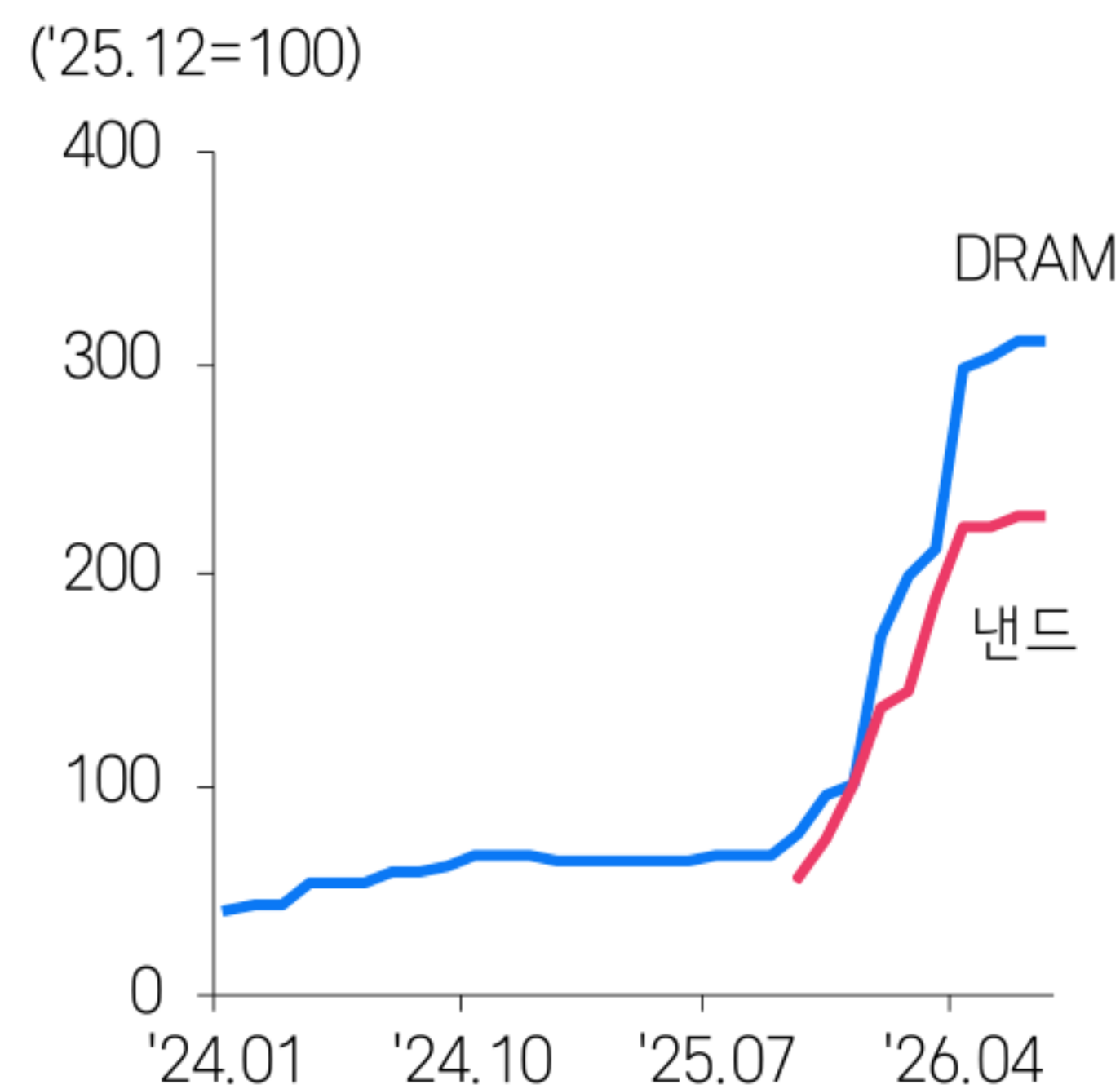
당사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고유가와 금융여건의 악화가 경기에 민감한 품목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라 '26년 연간 수출 전망 60%와 '27년 15%를 유지한다.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는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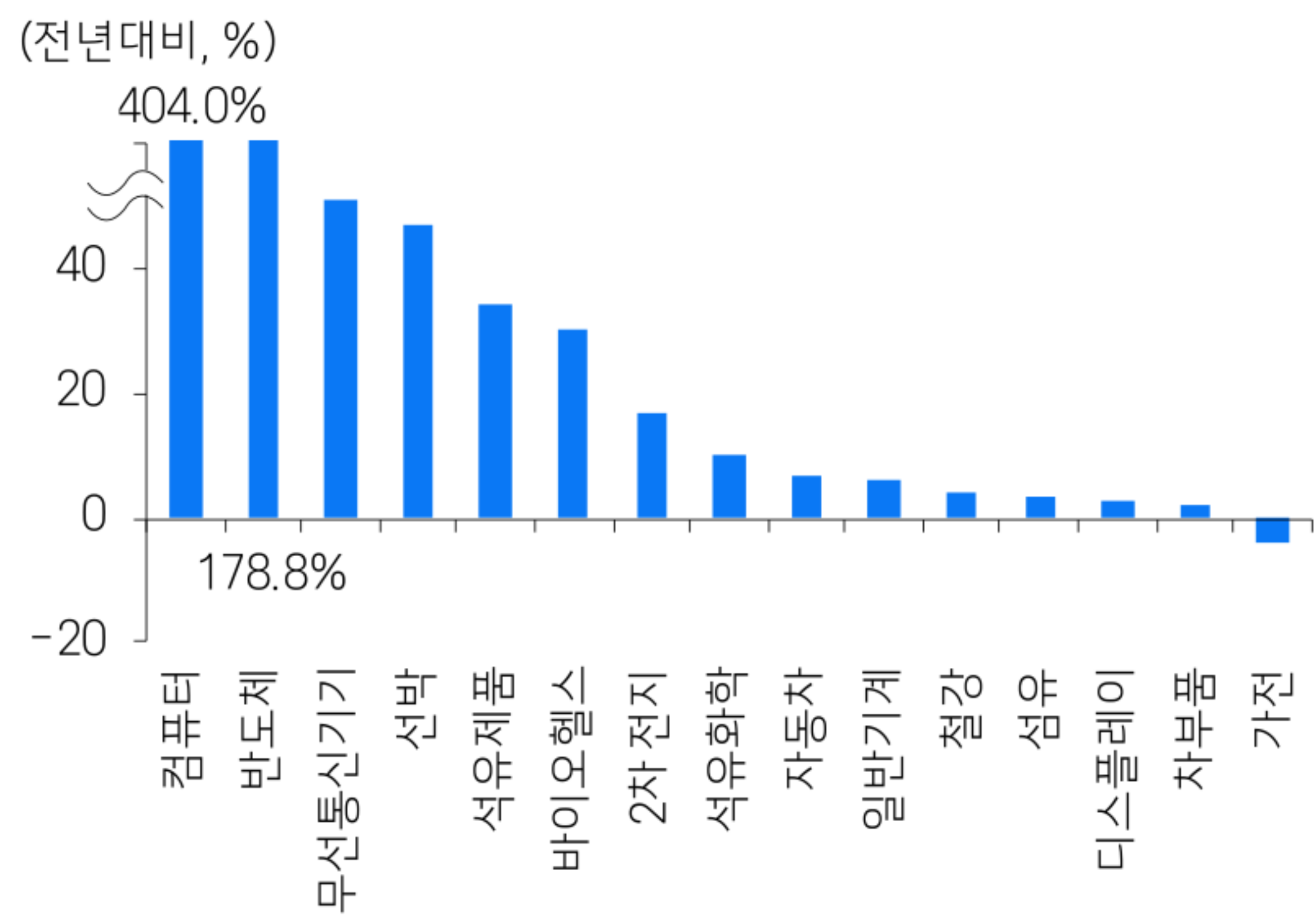
참고: 일평균 수출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반도체 단가 상승이 주요 증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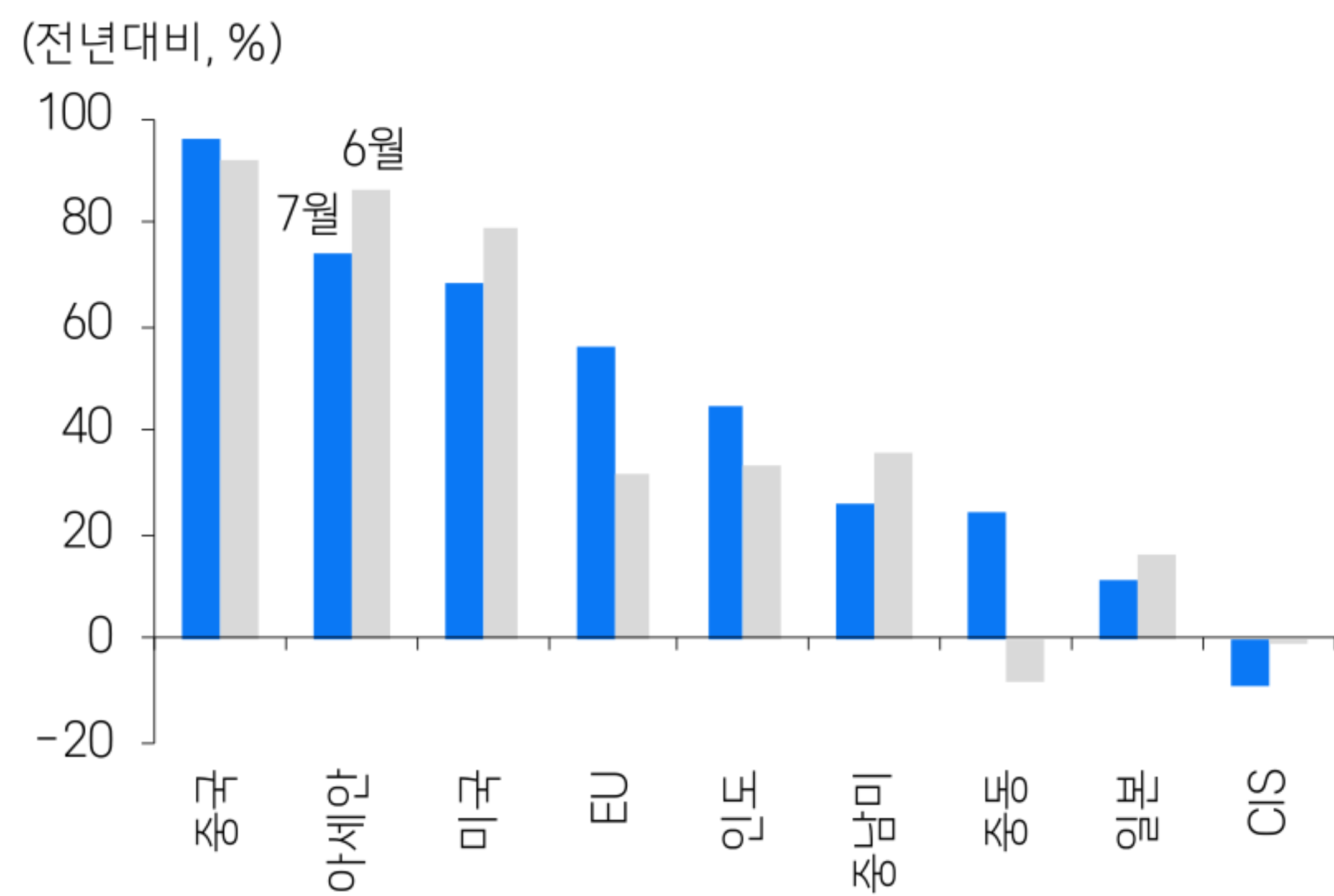
참고: 계약 가격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7월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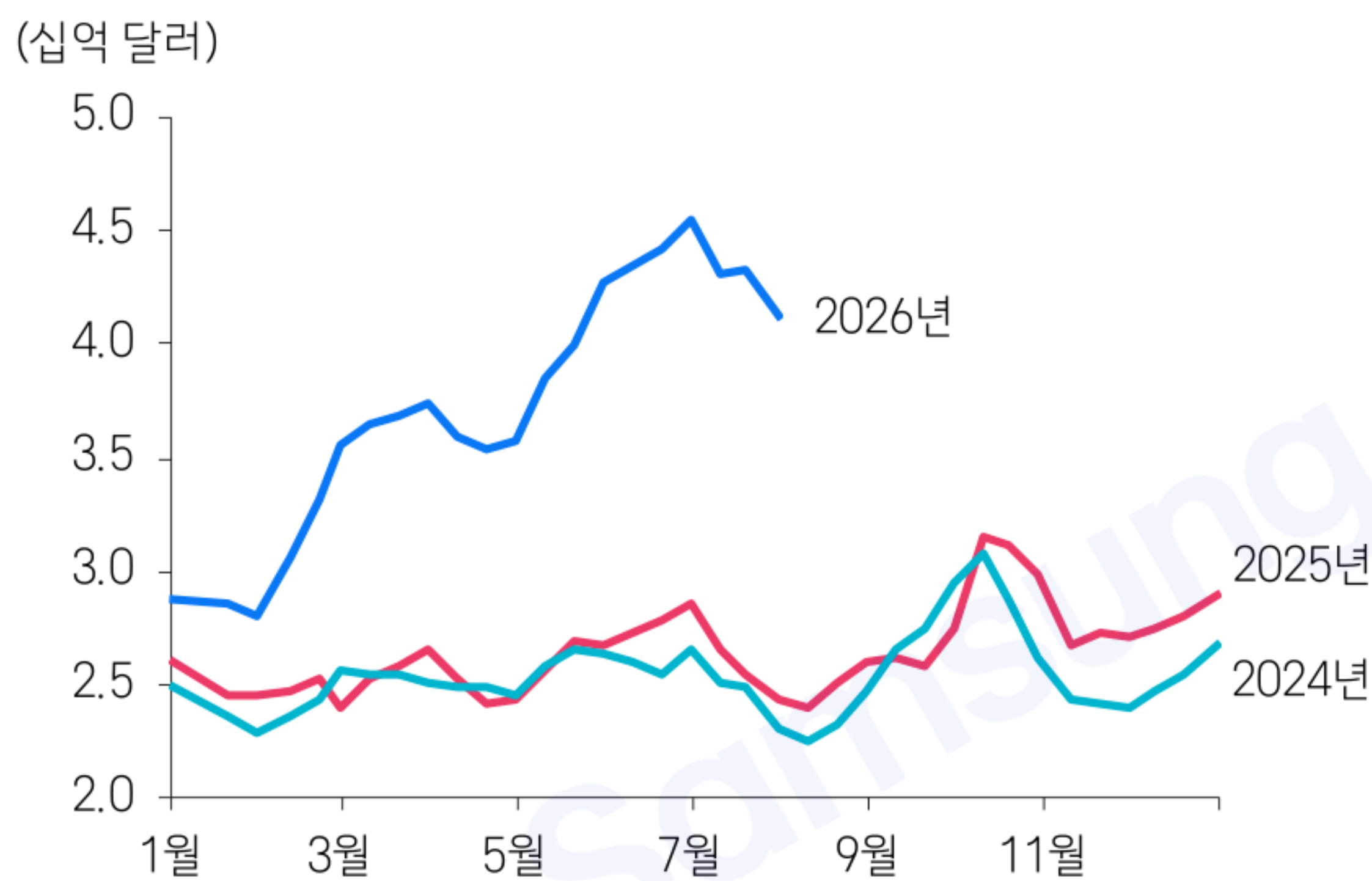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7월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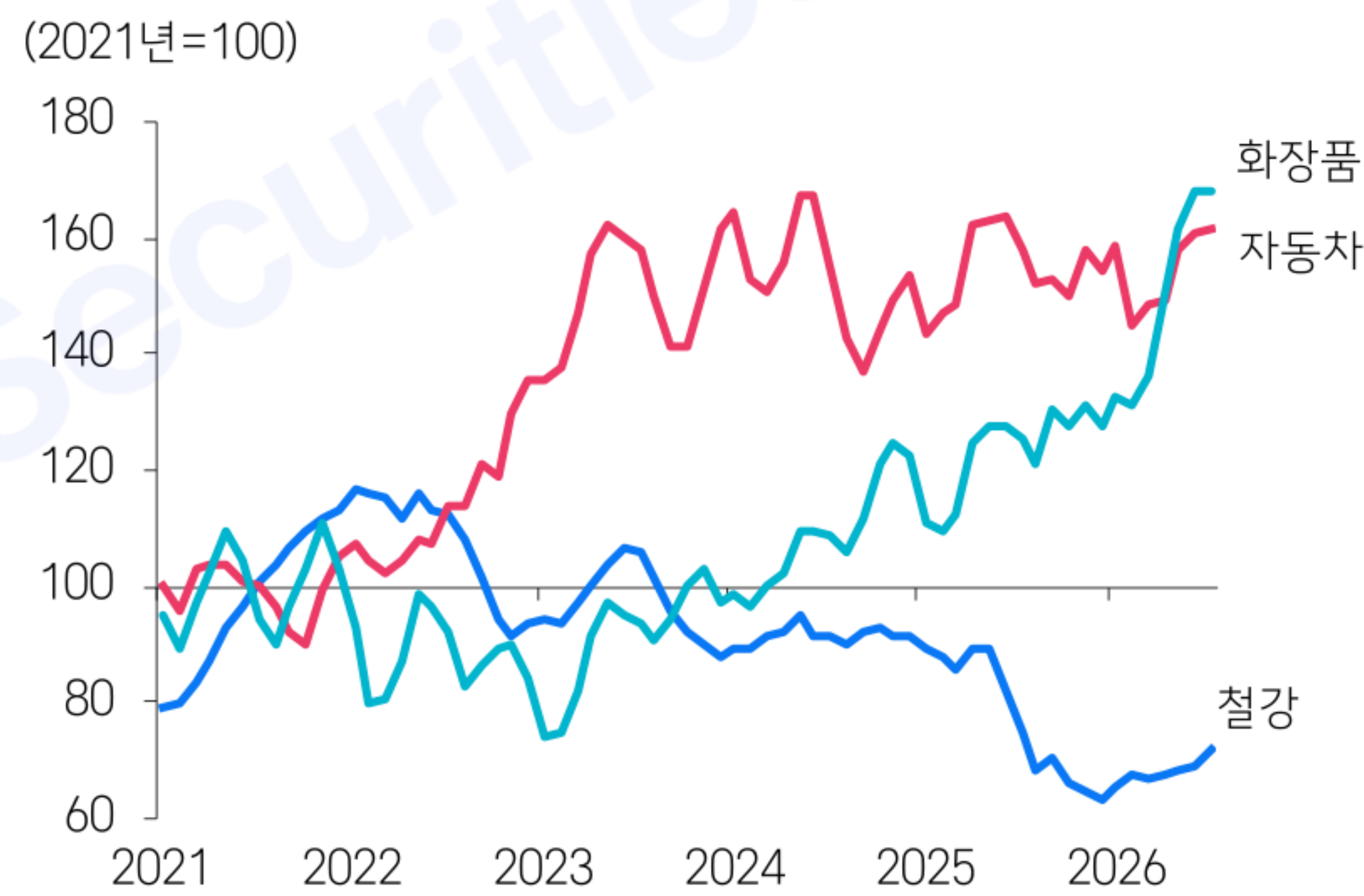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일평균 수출 추이



자료: 관세청, 삼성증권

철강 수출 완만하게 증가하는 중



참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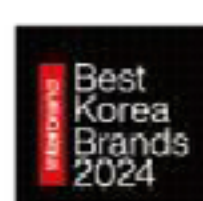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